

## 태국어의 포합에 관한 연구\*

윤경원\*\*

### I.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동사가 문(文)의 중심이라고 하는 견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동사가 다른 부류의 어휘보다 통사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중요한 영역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사는 문의 서술어로서 다른 문성분(文成分)을 통어하면서 그문이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마무리 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법, 시제, 상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동사는 어떤 종류의 어휘보다 다양한 특징을 갖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동사이든 명사이든 종래의 연구는 어떤 임의의 어휘에 대하여 의미를 연구하는 경향은 순수한 어휘의미론적 견지에서 그 어휘를 중심으로 하여 동의성이나 다의성, 반의성 또는 어휘변화 등에 대하여만 연구해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종래의 연구는 문(文)과는 관련

---

\* 본 논문은 200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조교수. [kwyoona@hufs.ac.kr](mailto:kwyoona@hufs.ac.kr)

이 없는 어휘 개별적인 연구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의미이론인 생성의미론에서는 해석의미론에서와는 달리 어휘 그 자체가 통사적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그 통사구조가문의 구조에 직접 간섭할 수 있다. 그래서 어휘를 문과의 관계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성의미론의 방법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전제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태국어 내에서의 특정 동사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동사란 그 종류에 따라 문을 구성함에 있어서 각기 다른 종류의 보충어(complement)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보충어가 문장 내에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것을 비문(非文) 또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태국어 내에는 보충어로 목적어나 부사어가 필요한 일부 동사가 표면구조에 그 보충어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동사들은 굳이 목적어나 부사어를 쓰지 않아도 비문이 되지 않고 그 동사 자체만으로 완전한 한 문장을 이루게 된다. 예를 들어 태국어에서 ‘가위로 자르다’ 또는 ‘유산하다’ 등의 동사 *กาวีโร* /*가위*라이/(가위질 하다), ‘*เลี้ยง*’/클릿/(아이를 낳다)는 각각 부사어 ‘가위로’ 또는 ‘자식’이라는 목적어를 쓰지 않아도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언어학에서는 포함(Incorporation)이라 한다.<sup>1)</sup>

이러한 포함에 대해서 Jeffrey S. Gruber(1976)는 하나의 특별한 문법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 언어에서 포함이라는 현상은 흔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각 언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 글은 태국어에서의 포함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태국어 동사에 있어서의 포함현상을 유형별

1) 포함은 Incorporation을 말하며 이것을 전수태(1987)는 통합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포함이라고 표현하기로 하겠다.

로 분류해 보고 둘째, 이러한 포함현상을 보이는 동사들이 문장 내에서 그들의 보충어로 어떠한 격들을 가지고 있는 부사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지도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태국어에서의 포함현상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부사어나 목적어가 필수적으로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경우와 둘째, 부사어나 목적어가 수의적으로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경우, 그리고 조건에 의해서 부사어나 목적어가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경우이다.

## II. 포함의 정의와 제 원칙

### 1. 포함의 정의

포함에 대해서는 전수태(1987)에 따르면 모든 동사들은 어휘사전(lexicon)에 그 기저구조의 성분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일부 동사에 있어서 이러한 기저구조의 성분들은 때로는 그 일부가 동사에 포함되어 버리고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포함현상이라 한다. 이러한 현상들을 표면구조만으로 살펴보면 기저구조의 문장이 표면구조로 나오는 변형과정에서 적용되는 탈락규칙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포함은 탈락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포함은 어휘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의미성분 내지 어휘성분을 어휘전 기저구조에 채택하면서 동시에 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저구조 자체는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 탈락규칙은 내면구조에서 표면구조로 나오는 변화과정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포함과 탈락은 적용되는 층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포합은 어휘 개별적인 상황이어서 일반화와 규칙화가 불가능하다. 포합을 규칙화 하려면 포합현상을 보이고 있는 모든 동사마다 개별적인 규칙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이미 규칙이라고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형규칙은 일반화와 규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포합은 의무적 요소의 선택적(수의적) 포합, 의무적 요소의 의무적(필수적) 포합, 선택적 요소의 선택적 포합, 선택적 요소의 의무적 포합으로 포합 자체의 적용이 매우 자유롭고 선택적이며 임의적인 데 대하여 변칙규칙 중의 탈락은 일정한 환경 내에서는 이러한 융통성 없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융통성이 있다면 이는 규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커다란 차이는 포합과 탈락규칙이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예) 그가 출발했다.

위의 예문에서 ‘출발하다’라는 동사는 “움직이다”라는 의미와 ‘어디로’라는 의미를 갖는 의미요소 즉, 의미성분들이 필요한 동사이다. 즉 아래와 같은 표현이 되어야 한다.

① 그가 움직여 어디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위의 예문 ‘그가 출발하였다’라는 문장이 정문이 되는 이유는 이미 동사 ‘출발하다’가 그러한 의미성분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② 기온이 올랐다

위의 예문에서 동사 ‘오르다’는 어떤 목표물에의 이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동사 역시 ‘위로’라는 의미의 구성요소가 필요한 동사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위로’라는 의미적 요소는 ‘오르다’라는 동사에 의무적(필수적)으로 포함됨을 알 수 있다.

태국어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예를 들어 태국어의 ‘**พัด/탓/**’이라는 어휘를 예를 들면 이 어휘는 사전에<sup>2)</sup> 나와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꽃, 연필, 담배 등의 물건을 귀와 관자놀이 사이에) 끼우다, 꽃다, 삼입하다”이다. 위의 사전적 의미에 위하면 태국어 동사 ‘**พัด/탓/** 목적격’을 갖는 보충어와 처소격을 보충어로 갖는 어휘이다. 또한 동사 ‘**พัด/탓/**’은 필수적으로 주격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동사 ‘**พัด/탓/**’은 주격, 목적격, 처소격 등 3개의 보충어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조건에 따라 문장을 구성하여보면 각각의 보충어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③    **แดง   พัด   ดอกไม้**  
       **댕    탓    덕마이**  
       **댕    꽃다   꽃**  
       : 댕이 꽃을 (귀)에 꽃다.

- ④    **แดง   ดอกไม้   พัด   ที่   หู**  
       **댕    탓    덕마이   티   후**  
       **댕    꽃다   꽃    -에   귀**  
       : 댕이 꽃을 귀에 꽃다

2) 태한사전(2000), 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부.

위의 두 예문은 모두 정문이다. 그리고 두 예문은 주격(주어)과 목적격(목적어)은 표면구조에 동사와 함께 필수적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처소격(장소부사어)은 표면구조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③의 예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비록 표면구조에는 처소격(장소부사어)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것은 함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처소격은 동사 ‘ฟัง’이 주격과 목적격과 함께 심층구조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사의 포함현상에 의해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고 생략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태국어에서 위의 두 문장이 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동사 ‘듣’의 포함현상은 그 사용에 있어서 수의적(optional)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단어를 예로 들어 보겠다. 태국어의 동사 ‘ฟัง/황/(듣다)’는 그 의미를 살펴볼 때 기저구문에서 보충어로 주격 목적격 그리고 도구격을 필요로 하는 동사이다. 그리고 이 동사 역시 위의 동사 ‘듣’과 마찬가지로 포함현상을 보이는 동사이다. 왜냐하면 주격과 목적격은 심층구조에서 뿐만 아니라 표면구조에서도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도구격은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고 생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사 ‘황’의 포함현상은 필수적(obligatory)이다. 아래 예문을 보자.

- ⑤      **แดง      ฟัง      เพลง**  
           แดง      황      플랭  
           แดง      듣다      노래  
           :   แดง이 노래를 듣다

위의 예문에서는 도구격을 갖는 부사어 즉 ‘ด้วย/두어이후/(귀로)’가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미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의미적으로 또는 통사적으로 필요한 구성요소가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고 그 동사가 구성요소의 의미를 함의하는 현상을 포함이라 한다.

## 2. 포함의 실현 특성에 따른 분류

태국어 내의 포함현상을 살펴볼 때 태국어의 포함현상은 그 실현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필수적으로 포함현상이 일어나야 하는 경우

동사의 포함현상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기저구조와 표면구조 사이에 나타나는 동사의 보충어들의 차이를 비교하여 말하게 된다.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포함현상이란 동사가 기저구조에 나타나 있고 필요로 하는 보충어가 표면구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①	แดง	ฟัง	เพลง
	แดง	황	플랭
	แดง	듣다	노래
	:แดง이 노래를 듣다		

②	แดง	ฟัง	เพลง	ด้วย	อะไร
	แดง	황	플랭	두어이	아라이
	แดง	듣다	노래	-로	무엇
	:แดง이 무엇으로 노래를 듣습니까?				

위의 예문에서 동사 ‘황’은 의미적으로 ‘ด้วย/두어이후/(귀로)’라는 도구격을 함의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③
- |    |    |     |   |
|----|----|-----|---|
| 황  | 플랭 | 두어이 | 우 |
| 듣다 | 노래 | -로  | 귀 |
- : 귀로 노래를 듣습니다.

위와 같은 대화문이 가능한 이유는 ‘황’이라는 동사가 기저구조에서는 ‘두어이후’라는 도구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도구격 ‘두어이후’는 표면구조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래와 같은 문장은 태국어에서는 비문이 되기 때문이다.

- ④
- |    |    |     |   |
|----|----|-----|---|
| 황  | 플랭 | 두어이 | 후 |
| 듣다 | 노래 | -로  | 귀 |
- : 황이 귀로 노래를 듣습니다.

이렇게 기저구조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할 구성요소가 표면구조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또 나타날 경우 비문이 되는 경우를 필수적으로 포함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말 할 수 있겠다.

2) 수의적으로 포함현상이 일어나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1)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즉, 1)의 경우는 동사가 기저구조에 나타나 있고 필요로 하는 보충어가 표면구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반면에 수의적으로 포함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동사가 기저구조에서 어떠한 보충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보충어가 표면구조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경우 이것을 수의적으로 포함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말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①    **แดง    ทัต    ดอกไม้**  
       แดง    ทัต    ดอกไม้  
       แดง    ทัต    ดอกไม้  
       :   แดง이 꽃을 (귀에) ทัต다

- ②    **แดง    ทัต    ดอกไม้    ทั    ุ**  
       แดง    ทัต    ดอกไม้    ทั    ุ  
       แดง    ทัต    ดอกไม้    ทั    ุ  
       :   แดง이 꽃을 귀에 ทั다

위의 예문에서 동사 ‘ทัต’은 “(꽃, 연필, 담배 등의 물건을 귀와 관자놀이 사이에) 끼우다, ทัต다, 삽입하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이다. 이 동사는 표면구조에 처소격을 갖는 ‘ทั후’라는 명사가 사용되어도 되고 사용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포함현상이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사 ‘ทัต’이 취할 수 있는 처소격은 명사 ‘후’가 유일하다. 만일 포함현상이 일어나서 표면구조에 처소격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이 동사 ‘ทั’는 ‘ทัทั후’의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ทั’는 처소격 ‘ทั후’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포함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처소격이 ②의 예문과 같이 표면구조에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포함현상이 수의적이라 할 수 있다.

### 3) 조건에 의해 포함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이러한 포함현상은 위의 1), 2)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조건에 의해서 포함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는 포함현상이 일어나야만 하고 어떠한 조건하에서는 포함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① **แดง เคี้ยว อาหาร**  
 땡 키야우 아한  
 땡 씹다 음식  
 : 땡이 음식을 씹다.

- ② **แดง เคี้ยว อาหาร ด้วย ฟันปลอม**  
 땡 키야우 아한 두어이 환빨림  
 땡 씹다 음식 -로 의치  
 : 땡이 의치로 음식을 씹다.

위의 예문에서 동사 ‘키야우’는 도구격의 부사어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이 동사 ‘키야우’는 도구격에 사용될 수 있는 명사가 ‘환’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의적인 포함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즉, 도구격에 사용된 명사 ‘환’이 아무런 수식어가 없을 경우에만 수의적으로 포함현상이 발생하여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태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은 비문이 되기 때문이다.

- ③ **\*แดง เคี้ยว อาหาร ด้วย ฟัน**  
 땡 카야우 아한 두어이 환  
 땡 씹다 음식 -로 치아  
 : 땡이 치아로 음식을 씹다.

그러나 명사 ‘환’이 수식어에 의해 수식을 받는 경우 포함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수식어의 수식을 받은 명사는 위의 예문 ②에서와 같이 수식어가 있는 그대로 표면구조에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포함현상을 조건에 의해 포함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3. 포합에 관계되는 격

태국어에 있어서 동사의 포합에 관계되는 격 즉, 포합현상을 보이는 동사들이 필요로 하는 보충어들의 격들은 아래와 같이 5개가 있다<sup>3)</sup>(남용우 외:27).

- 1) 기구격(Instrumental)
- 2) 목적격(Objective)
- 3) 처소격(Locative)
- 4) 시발격(Source)
- 5) 향진격(Goal)

위의 5개의 격들은 각각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1) 도구격

도구격이란 서정주(1996:469)에 의하면 동작의 방편을 나타내는 구실을 하는 부사어로서 수단이나 방편은 대개 사람의 손발, 기계, 기구, 재료 또는 그 밖의 사물 따위를 써서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를 이 글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ㄱ. 도구(Tool)

: 어떠한 행위나 상태를 있게 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

3) 여기서 관계되는 격들이란 동사가 포합현상을 보이며 그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격들을 의미한다.

(예)

แดง	ฉะ	มะม่วง	ด้วย	มีด
แดง	쳐	마무엥	두어이	밋
แดง	쪼개다	망고	-로	칼

: 덩이 칼로 망고를 쪼개다.

위의 예문에서 동사 ‘쳐’는 “도려내다, 쪼개다, 잘라내다”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 동사의 행위를 있게 하는 수단으로 ‘두어이밋’이라는 도구격 부사어가 사용된 문장이다.

ㄴ. 재료(Material)

: 어떠한 동작이나 상태를 있게 하는 재료를 의미한다.

(예)

แดง	ทำ	ตุ๊กตา	ด้วย	ผ้า
แดง	탐	뚜까따	두어이	파
แดง	만들다	인형	-로	천

: 덩이 천으로 인형을 만들다.

위의 예문에서 동사 ‘탐’은 “만들다. 제작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 동사의 행위를 있게 하는 재료로 ‘두위이파’라는 도구격 부사어가 사용된 문장이다.

2) 목적격

목적격이란 동사가 가리키는 행동이나 상태에 있어서의 역할이 동사 자체의 의미해석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명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 격에 대해 쿡(Walter A. Cook :12)은 가장 중립성이 강한 격이라고 하였다.

(예) 

แดง	กิน	ขนม
แดง	กิน	카놈
แดง	먹다	과자

: 땡이 과자를 먹다.

위의 예문에서 동사 ‘กิน’은 “먹다”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 동사의 목적어로 ‘카놈’이라는 명사가 사용된 문장이다.

### 3) 처소격

처소격이란 동사가 가리키는 상태나 행동의 장소 또는 공간 방향을 나타내는 격이다.

(예) 

แดง	นอน	ใน	ห้อง	นี้
แดง	넌	나이	ห้อง	นี้
แดง	자다	에서	방	이

: 땡이 이 방에서 자다.

위의 예문에서 동사 ‘นอน’은 “자다”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 동사의 행위를 있게 하는 장소 또는 공간으로 ‘나이ห้องนี้’라는 처소격이 사용된 문장이다.

### 4) 시발격(원천격)

어떠한 행위가 일어날 경우의 그 기점이 되는 장소 또는 사물을 의미하는 격이다.

(예) 

แดง	ตก	จาก	ต้นไม้
แดง	떨	떨	떨
แดง	떨어지다	-에서	나무

: 땡이 나무에서 떨어지다.

위의 예문에서 동사 ‘뚝’은 “떨어지다”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 동사의 행위가 일어난 기점이 되는 장소로서 ‘짜똥마이’라는 시발격이 사용되었다.

5) 향진격(목표격)

어떠한 행위가 일어날 경우의 그 도착점이 되는 장소 또는 사물을 의미하는 격이다.

(예) 

แดง	뚝	나이	남
땡	떨어지다	-에	물

  
 : 땡이 물로 떨어지다.

위의 예문에서 동사 ‘뚝’은 “떨어지다”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 동사의 행위가 일어난 목표점이 되는 장소로서 ‘나이남’이라는 향진격이 사용되었다.

### III. 동사의 특징에 따른 포함의 분류

앞 장에서는 포함의 실현 특성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여기서는 어떤 동사가 어떤 격들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그것을 다시 세분화하여 살펴보겠다.

#### 1. 필수적으로 포함현상이 일어나는 부류

이러한 종류의 포함은 일어날 수 있는 동사들을 살펴볼 때 포함현상을 보일 수 있는 격은 도구격이 유일하다. 그리고 도구격을 가질 수 있

는 명사를 살펴보면 오직 한 가지의 명사만이 그 동사와 결합함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①	แดง	ฟัง	เพลง
	แดง	ฟัง	เพลง
	แดง	듣다	노래
	:แดง이 노래를 듣다		

위의 예문에서 동사 ‘ฟัง’은 ‘두어이후’라는 도구격을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저구문에서는 ‘두어이후’라는 도구격을 가져야 하며 동사 ‘ฟัง’과 결합할 수 있는 명사는 ‘후’ 이외에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동사 ‘ฟัง’은 ‘두어이후’라는 도구격을 포함하며 표면구조에서도 도구격이 나타나지 않는다

## 2. 수의적으로 포함현상이 일어나는 부류

이런 부류의 포함은 동사가 어떤 격을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1) 동사가 도구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수의적으로 포함현상을 보이는 도구격을 구성하는 명사들을 살펴보면 다시 아래와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다.

#### (1) 도구격에 사용될 수 있는 명사가 하나 뿐인 경우

이 경우는 수의적으로 포함현상을 보이는 도구격을 형성하는 명사가 오직 하나만이 가능한 우를 말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① เขา ชำเลือง ทาง นี้ เรื่อย  
 카오 참르엉 탕 니 르어이  
 그 결눈질하다 쪽 이 계속  
 : 그가 계속 이 쪽을 결눈질하다.

② เขา ชำเลือง ทาง นี้ เรื่อย ด้วย ทางตา  
 카오 참르엉 탕 니 르어이 두어이 향따  
 그 결눈질하다 쪽 이 계속 로 눈길  
 : 그가 계속 이 쪽을 눈길로 결눈질하다.

위의 예문에서 동사 ‘참르엉’은 “결눈질하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이다. 이 동사는 표면구조에 도구격을 갖는 ‘두어이향따’라는 부사가 사용되어도 되고 사용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포함현상이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표면구조에 도구격을 갖는 부사 ‘두어이향따’가 생략되어도 동사 ‘참르엉’이 그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사 ‘참르엉’이 취할 수 있는 도구격에 사용될 수 있는 명사는 ‘향따’가 유일하다.<sup>4)</sup>

### 7. 도구

① แตง สาน ตะกร้า ด้วย มือ  
 땡 싹 따꾸라 두어이 브  
 땡 짜다 바구니 -로 손  
 : 땡이 손으로 바구니를 짜다.

위의 예문의 동사 ‘싹’은 ‘쥘다, 짜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로서 도구격(도구)을 갖는 부사어 ‘두어이브’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역시 그 적용에 있어서는 수의적이다.<sup>5)</sup>

4) 이 경우 ‘향따’ 이외에 ‘따’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5) 여기서 수의적이라는 의미는 포함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 ㄴ. 재료

②	แดง	เชื่อม	กล้วย	ด้วย	น้ำตาล
	แดง	츠엄	กล้วย어이	두어이	남판
	แดง	재다	바나나	-로	설탕

: 덩이 설탕으로 바나나를 재다.

위의 예문에서 동사 ‘츠엄’은 ‘(설탕에) 재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로서 도구격(재료)을 갖는 부사어 ‘두어이남판’이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그러나 포함현상에 있어서는 역시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2) 도구격에 사용될 수 있는 명사가 여러 개이나 포함현상은 특별한 명사와만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부류의 포함은 (1)의 경우와는 그 차이가 있다. 즉, (1)의 경우는 수의적으로 포함현상을 보이는 도구격을 형성하는 명사가 오직 하나만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데 반해서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명사들이 도구격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사가 여러 개의 도구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포함현상이 적용되어 도구격을 갖는 부사어가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동사가 포함하는 의미는 그 중에서 특정한 하나의 명사만을 의미하게 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③	แดง	ยิง	นก	ด้วย	ปืน
	แดง	잉	녹	두어이	타누
	แดง	쏘다	새	-로	활

: 덩이 새를 활로 쏜다.

위의 세 가지 예문은 모두 정문으로서 동사 ‘잉’은 ‘두어이쁜’과 ‘두어 이타누’라는 도구격 부사어를 모두 취할 수 있는 동사이다. 또한 포함현상이 적용되어 아무런 부사어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포함현상이 나타나서 표면구조에 부사어가 나타나지 않는 ①의 예문은 일반적으로 ‘두어이쁜’이라는 도구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깜차이 텡라: 185). 즉, ‘잉’이라는 동사에 적용되는 포함현상은 여러 가지 의미의 도구격 중에서 (두어이쁜)이라는 부사어에만 수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류의 포함은 (1)항의 부류들과 다른 여러 가지 명사들이 도구격에 사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여러 가지 명사들 중에 특정한 하나의 명사에 대해 포함현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용될 수 있는 명사들 모두에 대해 포함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사가 포함현상을 보여 표면구조에 명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그 의미는 중의성(ambiguity)<sup>6)</sup>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의미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아래의 예를 보자.

④    **แดง      ตัด            กระดาษ**  
       แดง       ตัด             กระดาษ  
       แดง       자르다        종이  
       :  แดง이 종이를 자르다.

⑤    **แดง      ตัด            กระดาษ      ด้วย       กรรไกร**  
       แดง       ตัด             กระดาษ       ด้วย       กรรไกร  
       แดง       자르다        종이            -로        가위  
       :  แดง이 가위로 종이를 자르다.

6) 언어학에서 중의적이라 함은 한 문장 또는 표현이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⑥
- |     |     |        |      |     |
|-----|-----|--------|------|-----|
| แดง | ตัด | กระดาษ | ด้วย | มีด |
| แดง | 깎   | 끄라닷    | 두어이  | 밧   |
| แดง | 자르다 | 종이     | -로   | 칼   |
- : 땡이 칼로 종이를 자르다.

위의 예문에서처럼 동사 ‘땡’은 ‘깎끄라이’, ‘밧’ 과 같은 도구격을 갖는 명사들과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포함현상에 의해 도구격이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동사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해석은 다양하거나 또는 아래와 같이 폭 넓게 해석되어 진다.

- ⑦
- |     |      |      |      |
|-----|------|------|------|
| ตัด | ด้วย | สิ่ง | มีคม |
| 깎   | 두어이  | 쌩    | 미콤   |
| 자르다 | -로   | 물건   | 날카로운 |
- : 날카로운 것으로 자르다.

위의 예문과 같이 해석되어진다는 것은 동사 ‘땡’이 포함현상을 보여 도구격이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물만을 함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동사 ‘땡’은 비록 표면구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날카로움을 가진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도구격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 2) 동사가 목적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수의적으로 포함현상을 보이는 목적격을 구성하는 명사들을 살펴보면 다시 아래와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다.

### (1) 목적격에 사용될 수 있는 명사가 하나뿐인 경우

이 경우는 수의적으로 포함현상을 보이는 목적격을 형성하는 명사가 오직 하나만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①      **แดง**      **แทง**  
 땡      탕  
 땡      유산하다  
 : 땡이 유산하다.

- ②      **แดง**      **แทง**      **รุก**  
 땡      탕      룝  
 땡      유산하다      아이  
 : 땡이 아이를 유산하다.

위의 예문에서 동사 ‘탱’은 “유산하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이다. 이 동사는 표면구조에 목적격을 갖는 ‘룩’이라는 명사가 사용되어도 되고 사용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포함현상이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사 ‘탱’이 취할 수 있는 목적격은 명사 ‘룩’이 유일하다.<sup>7)</sup> 만일 포함현상이 일어나서 표면구조에 목적격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이 동사 ‘탱’은 ‘탱룩’의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탱’은 목적격 ‘룩’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포함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목적격이 ②의 예문과 같이 표면구조에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포함현상이 수의적이라 할 수 있다.

(2) 목적격에 사용될 수 있는 명사가 여러 개이나 포함현상은 특별한 명사와만 나타나는 경우

그러한 부류의 포함은 (1)의 경우와는 그 차이가 있다. 즉, (1)의 경우는 수의적으로 포함현상을 보이는 목적격을 형성하는 명사가 오직 하나만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데 반해서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명사들이 목적격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

7) 이 경우 명사 **บุตร**(부), **เด็ก**(백) 등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의미면에서 ‘룩’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가 여러 개의 목적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포함현상이 적용되어 목적격을 갖는 부사어가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동사가 포함하는 의미는 그 중에서 특정한 하나의 명사만을 의미하게 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①      **แดง**      **ดื่ม**              **เก่ง**  
           แดง      듬                    쟁  
           แดง      마시다            잘  
           : 땡이 잘 마시다.

- ②      **แดง**      **ดื่ม**              **เหล้า**      **เก่ง**  
           แดง      듬                    라오      쟁  
           แดง      마시다            술            잘  
           : 땡이 술을 잘 마시다.

- ③      **แดง**      **ดื่ม**              **น้ำ**              **เก่ง**  
           แดง      듬                    남            쟁  
           แดง      마시다            물            잘  
           : 땡이 물을 잘 마시다.

위의 세 가지 예문은 모두 정문으로서 동사 ‘듬’은 ‘라오’와 ‘남’이라는 목적격을 모두 취할 수 있는 동사이다. 또한 포함현상이 적용되어 아무런 목적격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포함현상이 나타나서 표면구조에 목적격이 나타나지 않는 ①의 예문은 일반적으로 ‘라오’라는 목적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듬’이라는 동사에 적용되는 포함현상은 여러 가지 의미의 목적격 중에서 다른 것에는 적용되지 않고 ‘라오’라는 명사에만 수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동사가 처소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러한 종류의 포함은 처소격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다.

(1) 처소격에 사용될 수 있는 명사가 하나뿐인 경우

이 경우는 수의적으로 포함현상을 보이는 처소격을 형성하는 명사가 오직 하나만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①

แดง	ตัด	ดอกไม้
แดง	ตัด	ดอกไม้
แดง	ตัด	ดอกไม้

: แดง이 꽃을 (귀에) 切다.

②

แดง	ตัด	ดอกไม้	ที่	หู
แดง	ตัด	ดอกไม้	ที่	หู
แดง	ตัด	ดอกไม้	-에	귀

: แดง이 꽃을 귀에 切다.

위의 예문에서 동사 ‘ตัด’은 “(꽃, 연필, 담배 등의 물건을 귀와 관자놀이 사이에) 끼우다, 切다, 삽입하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이다. 이 동사는 표면 구조에 처소격을 갖는 ‘티후’라는 명사가 사용되어도 되고 사용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포함현상이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사 ‘ตัด’이 취할 수 있는 처소격은 명사 ‘후’가 유일하다. 만일 포함 현상이 일어나서 표면구조에 처소격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이 동사 ‘ตัด’은 ‘ตัด티후’의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ตัด’은 처소격 ‘티후’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포함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처소격이 ②의 예문과 같이 표면구조에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포함현상이 수의적이라 할 수 있다.

(2) 처소격에 사용될 수 있는 명사가 여러 개이나 포함현상은 특별한 명사와만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부류의 포함은 (1)의 경우와는 그 차이가 있다. 즉, (1)의 경우는 수의적으로 포함현상을 보이는 처소격을 형성하는 명사가 오직 하나만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데 반해서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명사들이 처소격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사가 여러 개의 처소격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포함현상이 적용되어 처소격을 갖는 부사어가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동사가 포함하는 의미는 그 중에서 특정한 하나의 명사만을 의미하게 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①      **แดง**      **클링**      **푸엥말라이**  
           แดง      클링      푸엥말라이  
           แดง      걸다      꽃다발  
           : 땀이 꽃다발을 걸다.

- ②      **แดง**      **클링**      **푸엥말라이**      **티**      **목**  
           แดง      클링      푸엥말라이      티      커  
           แดง      걸다      꽃다발      -에      목  
           : 땀이 목에 꽃다발을 걸다.

- ③      **แดง**      **클링**      **푸엥말라이**      **티**      **손목**  
           แดง      클링      푸엥말라이      티      커므  
           แดง      걸다      꽃다발      -에      손목  
           : 땀이 손목에 꽃다발을 걸다.

위의 세 가지 예문은 모두 정문으로서 동사 ‘클링’은 ‘티커’와 ‘티커므’라는 처소격 부사어를 모두 취할 수 있는 동사이다. 또한 포함현상이 적

용되어 아무런 부사어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포함 현상이 나타나서 표면구조에 부사어가 나타나지 않는 ①의 예문은 일반적으로 ‘티카’라는 처소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클렁’이라는 동사에 적용되는 포함현상은 여러 가지 의미의 도구격 중에서 ‘티카’라는 부사어에만 수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는 동사에는 ‘클렁’이 유일하다.

#### 4) 동사가 시발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러한 종류의 포함은 시발격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다.

(1) 시발격에 사용될 수 있는 명사가 여러 개이나 포함현상은 특별한 명사와만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부류의 포함은 수의적으로 포함현상을 보이는 시발격을 형성하는 명사가 일반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명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사가 여러 개의 시발격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포함현상이 적용되어 시발격을 갖는 부사어가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동사가 포함하는 의미는 그 중에서 특정한 명사만을 의미하게 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①      **ṭɪk**      **ṭɪk**      **uṭɪk**  
           위라      쑥      래우  
           위라      환속하다      완료시제  
           : 위라가 환속했다.

- ② 

ไว้	ศึก	จาก	พระ	แล้ว
위라	쓱	짜	프라	래우
위라	환속하다	-로부터	(남)승려	완료시제

: 위라가 승려에서 환속했다.

- ③ 

แดง	ศึก	แล้ว
댕	쓱	래우
댕	환속하다	완료시제

: 댕이 환속했다.

- ④ 

แดง	ศึก	จาก	หิ	แล้ว
댕	쓱	짜	치	래우
댕	환속하다	-로부터	비구니	완료시제

: 댕이 비구니에서 환속했다.

- ⑤ 

แดง	ศึก	จาก	เนม	แล้ว
댕	쓱	짜	넨	래우
댕	환속하다	-로부터	사미승	완료시제

: 댕이 사미승에서 환속했다.

위의 예문에서 동사 ‘쓱’은 “환속하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이다. 이 동사는 표면구조에 시발격을 갖는 ‘짜프라’라는 부사와 ‘짜치’라는 부사가 사용되어도 되고 사용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포함현상이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사 ‘쓱’이 취할 수 있는 시발격은 명사 ‘프라’와 ‘치’ 이외에도 동사 ‘넨’ 등의 명사들과도 결합할 수 있다. 만일 포함현상이 일어나서 표면구조에 시발격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이 동사 ‘쓱’은 ‘쓱짜프라’나 ‘쓱짜치’의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쓱’은 시발격 ‘짜프라’나 ‘짜치’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시발격이 ‘짜프라’ 또는 ‘짜치’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주어의 성(性)에 의해서이다.

즉, 주어의 성(性)이 남성일 경우 ‘프라(남자승려)’, 그리고 주어가 여성인 경우는 ‘치(비구니)’로 나누어지는 것이다.<sup>8)</sup> 또한 포함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시발격이 ②의 예문과 같이 표면구조에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포함현상이 수의적이라 할 수 있다.

(2) 시발격에 사용될 수 있는 명사가 여러 개이고 포함현상도 모든 명사와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부류의 포함은 (1)의 경우와는 그 차이가 있다. 즉, (1)의 경우는 수의적으로 포함현상을 동사가 여러 개의 시발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포함현상이 적용되어 시발격을 갖는 부사어가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동사가 포함하는 의미는 그 중에서 특정한 명사만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포함현상이 사용되는 모든 명사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①    เนรเทศ    คน    อินเดีย    3    คน  
 네르텟    콘    인디아        콘  
 추방하다    사람    인도            사람  
 : 인도사람 3명을 추방하다.

②    เนรเทศ    คน    อินเดีย    3    คน    จาก    ไทย  
 네르텟    콘    인디아        콘    จาก    타이  
 추방하다    사람    인도            사람    -에서    태국  
 : 태국으로부터 인도사람 3명을 추방하다.

8) 위의 예문에서 ①예문의 주어는 남성들이 사용하는 이름이고 ③예문의 주어는 여자들이 사용하는 이름이다.

- ③ 

เนรเทศ	คน	อินเดีย	3	คน	จาก	สิงคโปร์
네르텟	콘	인디아		콘	짜	싱가폴
추방하다	사람	인도		사람	-에서	싱가폴

: 싱가포르로부터 인도사람 3명을 추방하다.

위의 세 가지 예문은 모두 정문으로서 동사 ‘네르텟’은 ‘짜타이’와 ‘짜싱가폴’이라는 시발격 부사어를 모두 취할 수 있는 동사이다. 또한 포함 현상이 적용되어 표면구조에 아무런 부사어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포함현상이 나타나서 표면구조에 부사어가 나타나지 않는 ①의 예문은 일반적으로 어떤 한 명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 나라’를 함의하게 된다. 즉,

- ④ 

เนรเทศ	จาก	ประเทศ	หนึ่ง
네르텟	콘	쁘라텟	능
추방하다	사람	나라	하나

: (어떤) 한 나라로부터 추방하다.

라는 문장으로 해석되어진다. 이것은 그 시발격 자리에 어떠한 나라가 들어가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된다.

#### 5) 동사가 향진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러한 종류의 포함은 향진격에 사용되는 명사의 특징을 살펴볼 때 한 가지의 형태만 나타나고 있다. 즉, 향진격에 사용될 수 있는 명사가 여러 개이나 포함현상은 특별한 명사와만 나타나는 경우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① 

ไว้	บวช	แล้ว
위라	부엇	래우
위라	출가하다	완료시제

: 위라가 출가했다.

- ②      **ູຣະ**      **ບາຍ**      **ຟຣາ**      **ແລ້ວ**  
 위라      부엣      프라      래우  
 위라      출가하다 (남)승려      완료시제  
 : 위라가 승려가 되었다.

- ③      **ແດງ**      **ບາຍ**      **ແລ້ວ**  
 땡      부엣      래우  
 땡      출가하다      완료시제  
 : 땡이 출가했다.

- ④      **ແດງ**      **ບາຍ**      **ຖີ**      **ແລ້ວ**  
 땡      부엣      치      래우  
 땡      출가하다      비구니      완료시제  
 : 땡이 비구니가 되었다.

- ⑤      **ແດງ**      **ບາຍ**      **ເນັ**      **ແລ້ວ**  
 땡      부엣      넌      래우  
 땡      출가하다      사미승      완료시제  
 : 땡이 사미승이 되었다.

위의 예문에서 동사 ‘부엣’은 “출가하다, 출가하여 승려가 되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이다. 이 동사는 표면구조에 향진격을 갖는 ‘프라’라는 부사와 ‘치’라는 명사가 사용되어도 되고 사용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포함현상이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사 ‘부엣’이 취할 수 있는 향진격은 명사 ‘프라’와 ‘치’ 이외에도 동사 ‘부엣’은 ‘넌’ 등의 명사들과도 결합할 수 있다. 만일 포함현상이 일어나서 표면구조에 향진격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이 동사 ‘부엣’은 ‘부엣프라’나 ‘부엣치’의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부엣’은 향진격 ‘프라’나 ‘치’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향진격이 ‘프라’ 또는 ‘치’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주어의

성(性)에 의해서이다. 즉, 주어의 성(性)이 남성일 경우 ‘프라(남자승려)’, 그리고 주어가 여성인 경우는 ‘치(비구니)’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또한 포함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시발격이 ②의 예문과 같이 표면구조에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포함현상이 수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동사 ‘부엌’은 4)의 (1)에서 예로 든 동사 ‘쓱’과 상대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6) 동사가 시발격과 향진격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

이러한 종류의 포함은 시발격과 향진격에 사용되는 명사의 특징을 살펴볼 때 한 가지의 형태만 나타나고 있다. 즉, 시발격과 향진격을 구성하는 명사들이 여러 가지이고 포함현상도 어떤 특정한 명사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모든 명사에 모두 나타나는 것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①

แดง	แปล	หนังสือ
댕	뵐래	낭쓰
댕		번역하다

: 댕이 번역하다.

②

แดง	แปล	หนังสือ	จาก	ภาษา	อังกฤษ
댕	뵐래	낭쓰	짜	파싸	앙끄릿
댕		번역하다	-에서	언어	영국
เป็น	ภาษา	ไทย			
뵐	파싸	타이			
-로	언어	태국			

: 댕이 영어를 태국어로 번역하다.

③	<b>แดง</b>	<b>แปล</b>	<b>หนังสือ</b>	<b>จาก</b>	<b>ภาษา</b>	<b>เกาหลี</b>
	แดง	แปล	หนังสือ	จาก	ภาษา	เกาหลี
	แดง	번역하다	-에서	언어	한국	
	<b>เป็น</b>	<b>ภาษา</b>	<b>ญี่ปุ่น</b>			
	เป็น	ภาษา	ญี่ปุ่น			
	-로	언어	일본			

:แดง이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다.

위의 세 가지 예문은 모두 정문으로서 동사 ‘แปล’는 예문 ②에서와 같이 ‘작파싸앙끄릿’이라는 시발격과 ‘-u파싸타이’라는 향진격 부사어 그리고 예문 ③에서와 같이 ‘작파싸까올리’라는 시발격과 ‘-u파싸이뿐’이라는 향진격을 모두 취할 수 있는 동사이다. 또한 포함현상이 적용되어 표면구조에 아무런 부사어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포함현상이 나타나서 표면구조에 부사어가 나타나지 않는 ①의 예문은 일반적으로 어떤 한 명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 언어에서’ ‘어떤 특정한 언어로’라는 의미를 함의하게 된다. 즉,

④	<b>แปล</b>	<b>หนังสือ</b>	<b>จาก</b>	<b>ภาษา</b>	<b>หนึ่ง</b>
	แปล	หนังสือ	จาก	ภาษา	หนึ่ง
	번역하다	-에서	언어	하나	
	<b>เป็น</b>	<b>ภาษา</b>	<b>หนึ่ง</b>		
	เป็น	ภาษา	หนึ่ง		
	-로	언어	หนึ่ง		

: 한 언어에서 한 언어로 번역하다.

이라는 문장으로 해석되어진다. 이것은 그 시발격 자리와 향진격 자리에 어떠한 언어가 들어가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된다.

3. 조건에 의해 포함현상이 일어나는 경우<sup>9)</sup>

이러한 포함현상을 보이는 동사들이 함의하는 격을 살펴보면 도구격만이 이러한 포함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부류의 포함은 그 도구격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 1) 도구격에 사용될 수 있는 명사가 하나뿐인 경우

이 경우는 조건에 의해 포함현상을 보이는 목적격을 형성하는 명사가 오직 하나만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①

<b>แดง</b>	<b>เคี้ยว</b>	<b>อาหาร</b>
แดง	키야우	아한
แดง	씹다	음식

. :แดง이 음식을 씹다.

②

<b>แดง</b>	<b>เคี้ยว</b>	<b>อาหาร</b>	<b>ด้วย</b>	<b>ฟันปลอม</b>
แดง	키야우	아한	두어이	환빨림
แดง	씹다	음식	-로	의치

:แดง이 의치로 음식을 씹다.

위의 예문에서 동사 ‘키야우’는 도구격의 부사어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이 동사 ‘키야우’는 도구격에 사용될 수 있는 명사가 ‘환’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의적인 포함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즉, 도구격에 사용된 명사 ‘환’이 아무런 수식어가 없을 경우에만 수의적으로 포함현상이 발생하

9) 여기서의 조건이라 함은 통사적인 조건을 말한다.

여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태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은 비문이 되기 때문이다.

③

*แดง	เคี้ยว	อาหาร	ด้วย	ฟัน
แดง	키야우	아한	두어이	환
แดง	씹다	으믹	-로	치아

: 땡이 치아로 음식을 씹다.

그러나 명사 ‘환’이 수식어에 의해 수식을 받는 경우 포함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수식어의 수식을 받은 명사는 위의 예문 ②에서와 같이 수식어가 있는 그대로 표면구조에 나타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포함현상에 사용되는 도구격을 구성하는 동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ㄱ. 신체의 일부분

: 신체의 일부분이 도구격을 구성하는 명사가 된다.

예) ‘เท้า/타오/ (발)’, ‘ฟัน/환/ (치아)’, ‘แขน / 켄/(팔)’

ㄴ. 동사와 같은 형태를 갖는 명사<sup>10)</sup>가 도구격을 구성하는 명사가 된다.

예) ‘หว / 위/ (빗질하다)’

2) 사용될 수 있는 명사가 여러 개이나 포함현상은 특별한 명사와만 나타나는 경우

10) 이것은 고립어의 특징을 갖는 태국어의 특성 중의 하나로서 어휘형태의 변화 없이 동사, 형용사 또는 명사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이들의 품사의 결정은 문장 내의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부류의 포함은 1)의 경우와는 그 차이가 있다. 즉, 1)의 경우는 조건에 의해(선택적으로) 포함현상을 보이는 도구격을 형성하는 명사가 오직 하나만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데 반해서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명사들이 도구격에 사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사가 여러 개의 도구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포함현상이 적용되어 도구격을 갖는 명사가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동사가 포함하는 의미는 그 중에서 특정한 하나의 명사만을 의미하게 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①
- |            |             |            |
|------------|-------------|------------|
| <b>แดง</b> | <b>เกาะ</b> | <b>แขน</b> |
| แดง        | 까오          | 칸          |
| แดง        | 굽다          | 팔          |
- : 땀이 팔을 굽다.

- ②
- |            |             |            |             |             |              |
|------------|-------------|------------|-------------|-------------|--------------|
| <b>แดง</b> | <b>เกาะ</b> | <b>แขน</b> | <b>ด้วย</b> | <b>เส้น</b> | <b>สกปรก</b> |
| แดง        | 까오          | 칸          | 두어이         | 랩           | 썩까쁘룩         |
| แดง        | 굽다          | 팔          | -로          | 손톱          | 더러운          |
- : 땀이 더러운 손톱으로 팔을 굽다.

- ③
- |            |             |            |             |                  |
|------------|-------------|------------|-------------|------------------|
| <b>แดง</b> | <b>เกาะ</b> | <b>แขน</b> | <b>ด้วย</b> | <b>ไม้บรรทัด</b> |
| แดง        | 까오          | 칸          | 두어이         | 마이반탓             |
| แดง        | 굽다          | 팔          | -로          | 자                |
- : 땀이 자로 팔을 굽다.

위의 세 가지 예문은 모두 정문으로서 동사 ‘까오’ 위의 예문②, ③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도구격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포함현상이 나타나서 표면구조에 도구격의 부사어가 나타나지 않는 ①의 예문은 일반적으로 ‘두어리랩’이라는 도구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

되고 있다. 즉, ‘까오’라는 동사에 적용되는 포함현상은 여러 가지 의미의 도구격 중에서 ‘두어이랩’이라는 부사어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선택적으로 포함현상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사어가 어떠한 수식어의 수식도 받고 있지 않은 명사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수식어의 수식을 받지 않은 ‘두어이랩’이라는 목적격은 필수적으로 포함현상이 나타나야함을 의미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④	*ແຕ່ງ	ກາ	ແຂນ	ຜ່ວຍ	ເສັ້ນ
	댕	까오	켄	두어이	랩
	댕	꺠다	팔	-로	손톱

: 댕이 손톱으로 꺠을 꺠다.

따라서 위의 예문은 태국어 내에서 비문이 된다. 그러나 ‘랩’이라는 명사가 다른 수식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 경우 포함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그것은 표면구조에 나타나게 된다.

#### IV. 맺음말

이 글은 태국어 내에서의 포함현상에 대해서 살펴본 글이다. 이 포함현상은 그루버에 의해서 제안되었으며 이 글에서도 그루버의 이론을 따르고 있다. 그루버에 따르면 포함현상은 문장 내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태국어 내에서 명사와 부사구의 포함현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의 목적은 첫째, 태국어 동사에 있어서의 포함현상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고 둘째, 이러한 포함현상을 보이는 동사들이 문장 내에서 그들의 보충어로 어떠한 격들을 가지고 있는 부사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태국어 내에서의 포함현상을 살펴본 결과, 태국어의 포함현상은 세 가지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필수적 포함현상, 수의적 포함현상 그리고 조건적 포함현상이다. 또한 포함현상을 보이는 동사들이 문장 내에서 보충어로 취하는 격의 특징을 살펴보면 모두 5가지가 나타나게 된다. 즉, 도구격, 목적격, 처소격, 시발격 그리고 향진격의 총 5가지이다. 또한 이 연구는 태국어에서의 포함현상이 모든 명사나 부사들이 아닌 어떤 특별한 명사나 부사에 대해서만 발생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포함현상이라는 것은 각각의 동사들의 특별한 문법적 성질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태국어, 태국어동사, 포함, 격

### 참고문헌

남용우 · 임선호 · 이통진 · 황봉주 역 『격문법이란 무엇인가』 서울: 을유  
문화사

서정수. 1996. 『현대 국어 문법론』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우형식. 1996. 『국어 타동구문 연구』 서울: 박이정 출판사

이관규. 1989 『동사연결의 유형과 특성』 서울: 어학연구

전수태. 1987. 『국어 이동동사 의미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Chomsky, Noam.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Cook, Walter A. 1971. *Improvement in Case Grammar*. Georgetown  
University Press.

Gruber, Jeffrey S. 1976. *Lexical Structures in Syntax and Semantics*.  
Amsterdam

คำขัย ทองหล่อ. 1997. *หลักภาษาไทย*(태국어 기초).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รวมสาส์น.

นवरรณ พันธเมธา. 1987. *ไวยากรณ์ไทย*(태국어 문법).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รวมสาส์น.

พระยาอุปกิตศิลปสาร. 1998. *หลักภาษาไทย*.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สำนักพิมพ์ไทยวัฒนาพานิช.

Abstract

## Incorporation In Thai

Yoon, Kyung-W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thesis is a study of incorporation in Thai verbs.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approach proposed by Jeffrey S. Gruber. The study covers only the incorporation of nouns or prepositional phrases. The first aim of the study is to classify incorporation in Thai verbs. The second is to identify the cases which can be incorporated.

The analysis shows that there are three types of incorporation : obligatory, optional, and conditional. The third type is added to the first two types given by Gruber. In regards to cases, it is found that five cases can be incorporated. They are instrumental, objective, locative, source, and goal. The study also shows that incorporation mostly occurs with specific nouns, which means that incorporation is idiosyncrasy of each verbs.

Key words: Thai Language, Thai Verbs, Incorporation, Case

